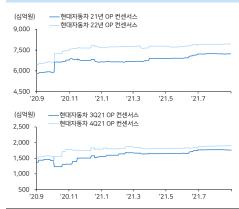
Daily Auto Check 2021. 9. 23(Th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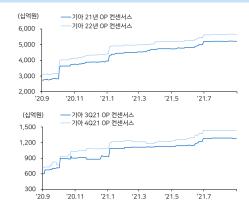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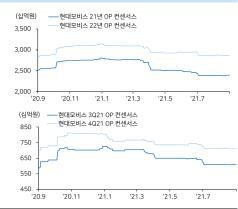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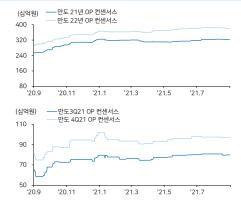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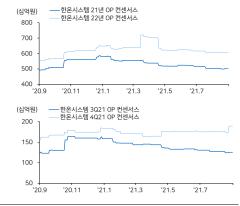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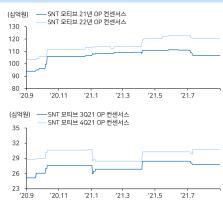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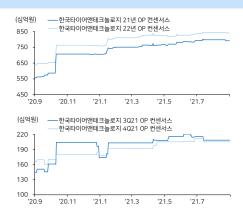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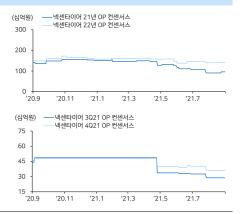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 기아, 美 친환경차 판매 2배 확대···전기차 공략 가속화 (디지털타임스)

현대차ㆍ기아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11만5.184대를 판매해 작년 동월 대비 1.3% 감소했지만, 친환경차 판매량은 8.312대로 같은 기간 124.4% 증가함. HEV가 6,269대로 yoy 두배이상 확대됐고 BEV는 2,000대로 3배 이상 증가함 https://bit.lv/3AuzGnl

리비안 전기트럭 본 현대차, 싼타크루즈 전기차 출시 검토 (한국경제)

현대차는 2030년까지 미국 판매 신차 절반을 친환경차로 전환하려는 정책 대용을 위해 싼타크루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를 검토 중. 업계는 싼타크루즈 전기 픽업트럭이 기존 플랫폼에 배터리를 넣어 제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함.

노차 시장 '시기상조'···전기차 중심 정책 로드맵 (THE GURU)

인도 정부가 EV에만 생산연계 인센티브(PLL) 를 적용, 보조금을 지급할 전망. 수소차 등 다른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하기엔 시장 규모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 첸나이 공장에서 코나EV를 생산하는 현대차그룹도 수혜 전망. https://bit.lv/3zsJ220

Electric Car Struggles Are Yet Another Problem for Evergrande (Bloomberg)

Evergrande New Energy Vehicle Group은 자동차 개발에 약 500억 위안(77억 달러)을 투자했음에도 생산 개시를 하지 못한 가운데, 추가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밝힘. 생산 계획 차질로 주가는 4월 이후 급락세를 지속 중. https://bloom.bg/3ELHSCv

"흥행 돌픙···연말엔 GV60 전기차 첫 선"··· 제네시스 2년 연속 내수 10만대 '질주' (매일경제)

ロ 수출 기대감을 키우는 가운데 연말에는 브랜드 첫 전용 전기차 GV60이 첫선을 보일 예정 https://bit.ly/39wnbvW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大청소중'…양산 초읽기 (THE GURU)

현대차는 약 1조8,230억원을 투자해 인도네시아 브카시시 델타마스 공단에 공장 건설 중. 올해 말부터 내연기관 3개 모델 을 시작으로 내년 3월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계획. 연간 15만대 규모의 CAPA이며, 향후 25만대로 확대 계획. https://bit.ly/3o420Pv

日도요타 내달 또 감산...반도체 위기 3분기 최고조 (아시아경제)

도요타는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이달에 이어 내달에도 글로벌 생산량을 목표 물량에서 40% 가량 줄인다고 밝힘. 도요타는 이달 초부터 수 주간 아이치현 도요타시에 있는 다카오카 등 주력 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한 상황. https://bit.ly/2XB2k8a

"수입 의존도 줄인다" 포드, EV 배터리팩 원료 재사용 나서 (서울경제)

포드가 배터리 재활용 스타트업 레드우드 머티리얼스와 손잡고 EV 배터리 팩의 원료 재사용에 나섬. 이번 합의는 완성차 업 체들이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공급망 확보에 다각도로 접근함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CBNC는 분석함. https://bit.ly/3i0GUbM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 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한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 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 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